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총학생회 만들 것”

서울캠 총학 후보 ‘우리의 경희’ 선본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장미영 기자 rose626@khu.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후보로는 ‘오늘의 경희’ 선본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정후보와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지난 19일 이들과 만나 출마배경과 공약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입후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정이 정후보(정) “대표에 도전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학생회와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을 배웠다. 소외받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보고자 한 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강필준 부후보(부) “약 3년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단순히 한 학과, 한 단과대 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라닝메이트로 함께 총학생회장-총부학생회장으로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 “2012년부터 쪽방탈출로 시작해 개방이사추진위원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까지 많은 사안들을 함께 하면서 호흡을 맞춰보았다. 이외에도 서로 활동해온 부분이 다른점들을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존 총학생회 운영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다소 아쉬운 점을 평가해달라.

정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 포기과 등록금 인상이 결정됐을 때, 교육부에 장학금 신청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방학 중임에도 공동서명 등으로 학생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인상 깊었다. 다만 일부에서 기존의 총학생회 운영이 폐쇄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발걸음을 빨리 하다 보니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양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형강의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궁금하다.

정 “가장 먼저 대형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직접 들을 것이다. 이외에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제시해 희망과목 담기와 실제 수강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공공기숙사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는가?

부 “지난 번 출마선언을 할 때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공기숙사 신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공공기숙사는 온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학교와 구청과 협의해 행정심판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좌 : 이정이(아동가족학과 2012) 정후보, 우 : 강필준(자율전공학과 2012) 부후보

《오늘의 경희 선본 주요공약》

공약	내용
대학운영 학생 참여 보장	학생개방이사 선임 추진,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회의 결과 해설
대형강의 축소	의견을 수렴 후 가이드라인 만들어 학교측에 제시, 희망과목담기 및 수강신청에 반영논의
공공기숙사 건축	행정심판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 축구코트 설치 등을 통한 운동공간 이리 피해 최소화
언론사 대학평가 거부	대학평가 관련 축하연 반대 캠페인, 신문사 광고비 공개요구, 2015년 9월평가거부 학생-학교-동문 입장발표 제안
학습공간 및 소모임 공간 확보	《숨은공간탐험대》운명을 통해 학내 숨은 공간 찾아 ‘캠퍼스 조모임 지도’ 발행, 위치와 시간 및 대여방법까지 기록

또 기숙사 건축으로 인해, 대운동장을 사용하는 운동동아리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구코트 설치등과 인근 병설학교의 운동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

-조모임 및 학습 공간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정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한번쯤 학습 공간 때문에 고민한 적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숨은 공간 탐험대’를 운영해 학내 곳곳에 숨어있는 공간, 빈공간들을 찾겠다. 이를 바탕으로 ‘캠퍼스 조모임 지도’를 발행할 예정이다. ‘캠퍼스 조모임 지도’에는 빈 강의실이 있는 위치와 시간 그리고 강의실 대여방법까지 기록해 학생들이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단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긴장이나 관심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있나?

정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등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선거운동에 많이 반영했다. 예를 들어, 매일 공약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오늘밤 경희>, 주말에 함께 등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산으로 가는 학생회>, 학내 캠퍼스 중 안전문제가 있는 곳을 직접 제보하는 <학내 안전 파파라치>등이 있다. 단순 선거 기간에만 쓰고 버리는 1회용 아이템이 아니라 당선이 된다면 향후 총학생회 운영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각오를 밝혀달라.

부 “학생회를 해으면서 느꼈지만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학생회, 신뢰받는 학생회는 낮은 개념이 된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낮은 자세에서 학생하나하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학생회가 되겠다. 학생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6개 단과대학 학생회 출마자 없어 저학년 피선거권 등 방안 필요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에 ‘출마자’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출마자가 없는 단과대학은 서울캠퍼스(서울캠) 문과대학,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 한의과대학 5곳과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 등 총 6곳이다. 이는 총 21개 단과대학 학생회 중 28.6%에 해당한다.

법과대학은 2008학번 이후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학부생 수 자체가 적다. 법과대학 학생회 이경원(법학 2008) 전 회장은 “2008년 이후 신입생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학생들은 모두 고학번”이라며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율전공학부도 학과 특성상 전과로 인해 학과에 남아있는 학생 수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이연준(자율전공

학 2013) 부회장은 “그동안 2학번에서 학생회장이 나왔던 점을 고려해볼 때,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배경이 단순히 적은 학생수 탓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과대학과 자율전공학부가 특수한 상황이라면, 타 단과대학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특히 문과대학과 생활과학대학에서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은 다소 의외다. 문과대학은 서울캠에서 주도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계속해왔고, 생활과학대학 또한 이번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회장 후보를 배출할 만큼 학생사회의 움직임이 적극적인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결국 타 학교에서도 나타나는 학생사회 축소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취업’이 학생들

에게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심재규(철학 2012) 위원장은 “시대가 변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회 활동을 확대하고 재구성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회 집행부가 신입생 위주로 구성되는 만큼 현재 3학년 진학예정자만 피선거권을 갖는 등의 회칙을, 저학년도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바꿀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출마자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단과대학들은 각각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먼저, 문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입후보등록을 다시 받기로 했다. 문과대학

은 24일부터 28일까지 입후보등록을 다시 받은 후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의과대학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다시 입후보 등록을 받는다. 법과대학은 비대위 없이 올해 학생회장이 내년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예정이다. 생활과학대학과 자율전공학부는 내년 3월 선거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경선으로 진행되는 단과대학은 정경대학과 생명과학대학 두 곳에 불과하다. 다른 단과대학들은 입후보를 등록한 후보자가 부족해 단선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4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1. 취득 가능학생 (서울캠퍼스의 학생은 국제캠퍼스의 사회봉사 교과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성적부여 방식: P / F (2014년도부터 P(교제)/F(낙제)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2학점(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2.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항목	2012~2학기 이전	2013~1학기부터	
사회봉사 1학점 취득요건	- 경희온라인캠퍼스 사회봉사 강좌 이수 - 입학 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휴학에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인정 기준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다음 각 항의 경우에만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이 불가능 ①1965 자원봉사포털(www.19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사회적응지원센터(www.vms.or.kr) 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기관에서 봉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 ②교내 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단,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과 사전 협의된 봉사활동만 인정 ③한철준을 기증하는 경우	
3.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2014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4년11월17일(월) ~ 2014년11월28일(금)15: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1. 실적등록 신청서 3. 소감문	
제출서류양식→ http://service.khu.ac.kr/→정보마당→) 자료실 4. 기타 세부사항 가. 봉사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나. 한학기당에 따른 인정 시간			
구분	2006. 2.28 이전	2006. 3. 1~2011. 2.28	2011. 3. 1 이후
인정시간	15	8	4
다. 한학기중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한학기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16시간까지 인정 가능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제17회 경희대학교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개최	
● 참가 및 제외대상	
참가대상	사업화 가능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제외대상	동일한 아이디어로 본교 및 타 창업경연대회에 선정된 경우 경진대회 신청 대상 아이디어로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경우
● 참가분야	
정보통신	S/W, H/W개발, 인터넷, 게임, 콘텐츠 사업 등
전자·전자	자동차, 부품 등
기계	자동차, 부품 등
화학	환경, 생명공학, 식품, 석유 등
생활 및 지식서비스	생활용품 관련, 문화, 광고, 출판, 디자인, 캐릭터 등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14. 11. 10(월) ~ 28(금) 17:00까지
제출서류	①참가신청서 ②사업계획요약서 ③창업사업계획서 ④재학증명서
접수방법	방문접수(네오르네상스관 308호) 또는 이메일접수(khsd2825@khu.ac.kr)
문의처	창업보육센터 행정실 (02-961-9330~2, khsd2825@khu.ac.kr)
※ 자세한 내용은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kbc.khu.ac.kr)	
● 평가방법 : 서류심사(30%)+발표심사(70%)	
● 시상내역	
최우수상(1팀)	200만원 보육센터 공간 6개월 사용 우선권, 상장
우수상(2팀)	각 100만원 보육센터 공간 6개월 사용 우선권, 상장
장려상(2팀)	상품권 지급 상장
※ 수상내역은 신청팀 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주최 :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주관 :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15학년도 법무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전공(아간)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특별과정	한·영법률 번역과정 (법률영어, 법률번역, 법률직문, 미국법입문, 한국법입문)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화요일 19:00~21:50 ※ 토요일 주간강의 개설예정	
2. 전형방법 : 면접		
3. 전형일정		
구 분	일반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	2014. 11. 17(월) ~ 12. 5(금)	
전형일	12. 6(토) 14:00	
합격자 발표	12. 9(화) 16:00	
등록예치금 납부	12. 10(수) ~ 12. 12(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합격자발표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 (interlaw.khu.ac.kr)에서 확인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interlaw.kh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학년도 언론정보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1. 석사과정 모집학과 및 인원				
구 분	학 과	전 공	모 집 인 원	
석사과정 (신입/편입)	저널리즘	신문·잡지	00명	
		방송		
		광고		
	전략커뮤니케이션	총보		
		스피치·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	출판·저작권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자 격	일반전형		
석사과정 (신입/편입)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① 입학원서 (본 대학원 양식) ②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당자) ⑥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부착용)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학사과정 편입자의 경우에는 편입 전 학교 성적증명서도 같이 제출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료: 50,000원)				
4.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4.11.17(월) ~ 11.27(목)	방문접수.우편접수		
전형일(면접)	2014.12.6(토) 14:00	본교 청문관 613호		
등록예치금 납부	2014.12.15(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5. 특전 : 경희동문장학, 공무장학, 언론장학, 모범장학 등				
6. 교유의 특징				
- 야간 수업 진행으로 직장인 학습 편의 제공				
- 사이버 강의 운영으로 친숙한 온라인 학습 환경 제공				
7. 입학문의				
- 전화 : 02-961-0560~1(청문관 6층)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문관 606호				
- 이메일 : khsb2520@khu.ac.kr				
- 웹사이트 : http://khu.communication.ac.kr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